

9강 계시록 속의 어리석은 질문에 성경이 답하다 2

[오늘의 어리석은 질문]

1. 두 증인이 누구인지 아니?
2.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인지 아니?
3.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의 정체는 뭘지 아니?

☹ 어리석은 질문1. 두 증인이 누구인지 아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쉰 배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요한계시록 11:3

💡 어리석은 주장

- 10장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은 새 요한(이만희)과 지팡이 같은 갈대로 비유한 육체, 곧 새 요한을 돕는 영적 배필(홍종효)?
- 요한계시록 사건을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할 두 명의 증인?

📖 성경의 답

1.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15, 새번역
2.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마태복음 18:16, 새번역
3.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요한계시록 11:4, 새번역
4. “내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요한계시록 1:20, 새번역

❗ 성경에서 둘은 법정 효력을 발생시키는 최소한의 숫자이다.

❗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사역이 장차 하나님 앞에 구원과 심판의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사역임을 의미한다.

☹ 어리석은 질문2.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인지 아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는 아이를 배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1-2

💡 어리석은 주장

-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영적 자녀를 해산하는 여자로 유재열을 비유한 존재?
-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이만희 총회장?

📖 성경의 답

1.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 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울리며 소리를 높여라.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이사야 54:1, 5, 새번역

2.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 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열한 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창세기 37:9, 새번역
3.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사도행전 8:1, 새번역

- ❖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로, 그러나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비유한다. 하지만 장차 회복의 때에 임신과 출산의 복이 임할 것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 즉 메시아의 출생을 예고한다.
- ❖ 해, 달, 별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여인은 구약을 품은 교회, 즉 신약의 교회이다. 신약성경은 교회가 핍박을 피하여 흩어지는 상황을 종종 묘사하고 있다.

☺ 어리석은 질문3.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의 정체는 뭔지 아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1-2

👤 어리석은 주장

- 소위 멸망자의 실상이라고 주장하는 청지기 교육원의 일곱 교단을 다스리는 일곱 목사와 그들에게 소속된 열 명의 장로들?
-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이미 성취된 실상?

📖 성경(역사적 배경)의 답

1.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일곱 개와 뿔 열 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일곱 개 쓰고 있었습니다. …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3, 9, 새번역
2.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네 개나 있었고, 머리도 네 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 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열 개나 달고 있었다.” 다니엘 7:6-7, 새번역
3. “그 짐승은, 큰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마흔두 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5-7, 새번역

- ❖ 일곱 머리의 목자라고 주장하는 일곱 목사 중에 1명만 침례교 목사이고, 나머지는 장로교 소속 목사이기에 일곱 교단을 대표하는 이들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 5명만 활동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열 뿔 중 2명의 장로는 신천지의 구성원이 된다.
- ❖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은 다니엘 7장에 예언된 짐승의 모습과 닮아 있고, 로마 제국 시대에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자신을 신의 아들로 높여 신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하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칼로 죽이는 제국의 통치자를 가리킨다. (로마의 황제, 제2의 네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다음 강의 : 우리들의 질문에 성경이 답하다』